

景觀에 介在된 內容과 形式의 解釋

—석굴암 造營을 통하여 본 石窟形式과 신라의 東向文化性을 中心으로 —

鄭基浩

成均館大學校 造景學科

On the Matter and Form of Landscape

—by the case of the Grotto Sokgulam —

Jung, Ki-Ho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 Kyun Kwan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based on the thought of the place, I tried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place and interpret its landscape. The landscape of the mt. Toham with its Grotto-temple "Sokgulam" is the major object of it.

The "matter and form" of the Sokgulam realizes the archetypal meaning of the grotto, birth or place of the birth, in a concrete picture. The aesthetics of the Sokgulam, the matter and form in the work of arts, comes out light harmonious with the elements: "grotto", the new foreign element of the architectural style and "orientation", the old domestic one of the Shilla that presented itself at the Chomsongdae, a kind of observatory.

The interrelation of the old and new elements in work of the Sokgulam shows us also a thought as an opinion of the transference to say: the matter of the traditional subject, "orientation", must be refreshed by the form of the modern architectural style of "grotto" and the form makes the abstract matter concretely in sight, by receiving the natural happening of the sunrise at the winter solstice.

I. 서 론

석굴암 조영에는 두가지의 특징적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 석굴 사원의 형식을 띤 造營形式의 요

소와, 向을 동해구의 동지 일출과 치밀하게 맞추어 놓음으로써 자연현상을 매개로 한 造營計劃의 요소가 그것이다.

신라의 동향문화는, 혁거세의 "붉은레"의 의미

가 곧 태양과 聯想作用 되어 있고 脱解가 동해의 龍城國에서 도래했다는 것에서 보이는 “東”의 방향, 그리고 천마총의 東頭西足の 墓制와 같이 경주의 여러 고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선사시대 이래의 東枕風習 등에서 그 전래적 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기타 설화 지명 등에서 태양 또는 특히 일출에 상관된 인식의 구체적 형상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東向 또는 向日出性 文化素는, 비록 그것이 세계의 곳곳에서 通時的으로 발견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화의 전파에 의한 외래적 요소라기 보다는 토착적 향토적으로 自生하고 있는 原型的의 脈絡의 傳來素에 해당된다.¹⁾

그에 대하여 佛寺로서 석굴사원을 조성한 것은, 사원조영의 일반적 형식으로 미루어 볼때, 당시로 보아서는 엄연한 외래적 요소가 된다(엄밀히 보아서 절대적 전래소는 있을 수 없다 하더라도, 토착화된 요소를 새로이 전파된 문화요소로 대안 상대적 전래요소라고 한다면). 문화의 전파는 예술행위에 의해 그곳의 문화속에 수용 정착되어 감으로써 이루어 진다. 석굴암의 경우, 우리는 뚜렷이 이러한 두 요소 — 傳播된 外來素와 傳承되어 온 傳來素 — 로써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두 요소의 성격과 함께, 석굴암 조영의 궁극적인 핵심이 불사의 조성에만 있었던가를 숙고해 볼때, 불사조성 그 자체를 석굴암조영의 궁극적 목표로 가정해 본다면, 석굴암은 매우 축소되고 한정된 의미에 국한되어 버린다.²⁾

말하자면 불사조성과 진리추구라는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下位的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하위적 형식을 빌어서 담은 뜻은 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³⁾

석굴암은 결국 그 조성을 통하여 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할때)

그것으로써 추구한 예술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신라의 동향 문화적 요소가 불교문화적 요소와 혼합된 특징적 양상을 살펴보면, 하나의 조형물이 다른 일련의 조형물들과 함께 큰 덩어리의 空間經營形式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용된 관계, 즉 傳來되어 온 문화양상과 傳播되어 온 외래문화적 요소가 서로 결합되면서 하나의 景觀을(또는 景觀의 中心을) 이루는 과정을 검토해 볼수 있다. 조형물이 지니는 이러한 장소성은 조형물 자체의 형태와 그에 의해 발현되는 어떤 의미로써 이루어지는, 그것의 예술성을 근원으로 한다.

본고는 하나의 조형물이 경관 또는 경관의 중심을 이루어 가는 모습을 석굴암의 경우를 들어 살펴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석굴암의 예술성 구현을 위하여 대개되었을 外形과 內容을 외래소와 전래소의 관계로써 설명해본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위하여 동향문화적 요소를 신라 자체의 문화가 이미 어느 정도의 고유성으로써 함축하고 있었던가를 침성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석굴암 그 자체를 둘러싼 통시적 제 자료를 통하여 그것의 藝術的發現을 논하고, 이러한 성격의 석굴암이란 존재가 못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인식되어 왔는가 하는 認識的 側面的 解釋을 내려 보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가 곧 석굴사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내재시키고 있는 내용, 즉 석굴암의 藝術性이자 그것의 景觀要素的 意味를 말해 주는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 瞻星臺 : 新羅의 東向 文化性的의 考察

신라의 문화를 논할때, 이미 우리의 오랜 문화속에 스며 들어와 있는 불교문화와 함께, 동향문화라는 특징이 종종 거론되곤 한다. 신라의 동향문화가 거론될때, 석굴암과 東海口의 大王岩 利見臺 그

註 1) 권상로는 삼국유사의 解題에서 卵生說話와 관련한 알이나 櫃 등의 모체가 태양임을論하고 있다: “그 곰이니 개구리니 케니하는 것의 모체가 원래는 <알>로서 표상된 태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예를들면 동명왕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선 알>이라고 한 것을 중국문헌에서는 햇빛[日光]이라 했고... 하는 것 등은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권상로, 78: 43)

2) 이는 일면, 호국불교의 발현이라는 극히 세속적 차원의 설의 발생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모든 外延의 可能性을 배제시켜 버린, 호국불교적 성격을 전제로한 고찰은 자칫 편협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3) “우리가 모든 주의를 집중한 것은 이 위대한 예술적 유산이 지니는 宗教的 哲學的 意味에 대해서 이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 석굴암이 佛敎的 世界觀에 입각한 신앙과 修道의 가룩한 정성의 結晶이지, 단순한 예술적 감각 이거나 건축이 아닌 까닭이다.”(한국 불교 연구원, 83: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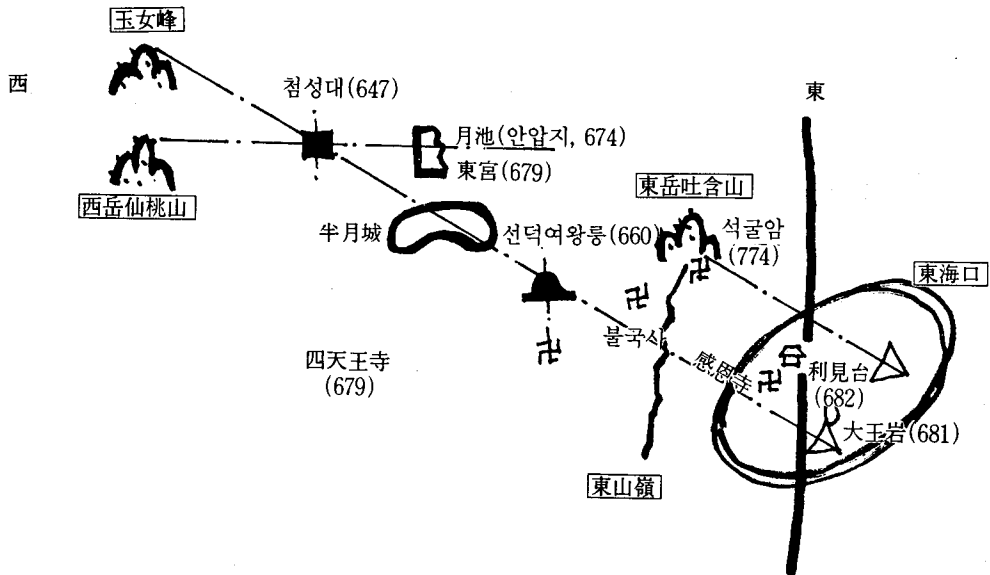
리고 感恩寺 등의 경우를 들어, 동해를 지키려는 護國佛敎의 性向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로써 침성대의 경우를 들어볼때,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잘 논의되지 않고 있는 한 성향-東向性-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침성대의 용도 및 성격에 대해서 여러 說과 함께, 그 중요한 기능이 불명확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실은 침성대와 상관되어 있는 일련의 대상의 외형적 용도 및 기능 등을 총괄한 총체적 의미도 따라서 어떻게 밝혀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⁴⁾

하나의 대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수록 그것의 본질은 서로 얽혀있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된 組合으로 이루어 진다. 침성대를 이루고 있는 복합성 중 한 특징으로, 침성대는 그것을 중심으로한 일련의 대상들과의 관계성에 의해 국가체제의 수립과 정에서 오는 王都의 의도적인 軸의 設定과 관계된 것으로 밝혀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거론될 신라의 동향문화적 성격규정과 석굴암에 개재된 동향성의 해석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준다.

신라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동향문화와 불교문

화를 두고, 침성대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관계성을 지닌 대상물들 —善德女王陵과 四天王寺 및 雁鴨池, 그리고 仙桃山과 玉女峰 등—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결국 종교적 측면의 불교문화(즉 佛寺造營)와 정치적 측면의 궁중문화(즉 東宮이나 王陵)의 두 요소가 침성대라고 하는 不明의 대상을 중심점으로한 일정한 線上에 놓여 있음이 밝혀진다. 즉 이들 대상들과 동해구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대왕암과 감은사 그리고 이견대 등을 그 조성 연대 별로 열거하여 그들의 위치를 일괄해 보고,이들을,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東岳 吐含山과 西岳 仙桃山 그리고 玉女峰 등의 자연조건과 冬至日出의 자연현상을 함께 묶어 보면, 옥녀봉의 頂上과 동지의 일출이 침성대 선덕여왕릉과 함께, 석굴암과 동지 일출이 이루는 線과 나란한, 하나의 線을 이룸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여기서 언급된 이들 각 장소들은, 결과적으로 선도산 정상을 한 점으로 잡은 東西軸과 옥녀봉 정상을 한 점으로 잡은 동지 일출방향의 軸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의 침성대가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서로 엮여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註 4) 침성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천문관측대(남천우), 須彌山 모양의 제단(이용범) 등 그 용도 및 성격에 관한 여러 설이 있는 가운데 어떤 정설이 형성된 바가 없다. 각 설에 대한 논란은 (남천우, 87; 288-298)을 참조.

주어진 자연현상의 한 특징을 포착하여 그 위에 조형물을 극히 계획적으로 얹혀놓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덕여왕 16년(647)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첨성대는, 이후의 일련의 佛寺 및 宮中物의 조성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선덕여왕과 관련된 三國遺事의 記事들—선덕여왕이 生時에 자신의 능침을 도리천(남산 신유림)에 지정해 준 것, 문무왕 때의 남산 아래에 四天王寺를 설치하게 된 것 등(권상로, 78; 108-109, 113)—을 참고해 봄으로써 선덕여왕의 첨성대 조영의 의도를 推論해 볼 수 있다.

즉 첨성대와 선덕여왕릉은 옥녀봉에서 동지일출 방향을 축으로 삼았을 때 그 축상에 정확히 자리하고 있다(그림-1 참조). 이 일출방향의 축상의 무수한 지점 중 첨성대는 서악 선도산 정상을 지나는 동서방향의 緯度線과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첨성대 상부 및 臺座의 모서리를 잇는 대각선은 옥녀봉-일출을 잇는 축선 상에 정확히 놓이고(송민구, 87; 165), 출입구로 보이는 개구부는 정남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출 축의 연장선 상의 남산 정상 부근에 선덕여왕의 능이 역시 정남향으로 놓여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남산 아래에 조성된 사천왕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도리천이라고 예언된 선덕여왕의 뜻을 문무왕이 사천왕사의 장소결정의 중요한 인자로서 수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

여기서, 전해오는 이야기와 현재의 지도 상으로나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즉 선덕여왕은 첨성대 조성을 계획하면서 그 이전부터 중시되어 온 東向文化(또는 向冬至日出)의 性向에 따라 그 장소를 결정하였고 그때 이미 자신의 능침자리도 결정해 두었다. 그리하여 첨성대는 그 이후의 몇몇 중

요한 조영계획에서의 장소결정의 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⁶⁾ 아울러 軸의 設定과 그것의 求心點이 되는 첨성대 조성의 이 意圖性은 그 조성에서 向日性이 중요히 매개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서든 당시 신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事案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2. 石窟庵

1) 吐舍山 周邊의 諸 現象

석굴암과 동해로 부터의 일광과의 관계, 즉 석굴암에 비취드는 아침햇살이 온 굴 안을 비춘다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볼 때 이들의 관계는 현대인이나 신라인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요인이 되는 것인가—이와 같은 테마는 결코 석굴암이나 동해 일출의 현상 그 자체 만으로는, 현상의 해석 즉 그 특수한 현상 이상의 설명을 줄 수 없다는 데에 이르러 반드시 크나큰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에 의한 가능성임을 배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왜?”라는 의문에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석굴암이 불국사와 상관적으로 생각되어야 함은, 그것의 창건기사나 창건과 관계된 대성설화로 보아서도 명백하리 만큼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둘과의 관계성 규명에 의 접근은 이러한 원칙론 이상의 것에서 조금도 진전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前生の 父母를 위해 石窟庵을, 그리고 以生の 父母를 위해 佛國寺를”이라는 사실을 놓고 그 말이 지닌 사실 이상의 무엇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와같은 점 외에도, 토함산의 존재가 또한 의문 사항으로 떠올 수 있다. 석굴암이, 그리고 불국사 마저도 그 토함산에 있기 때문 만이라 하더라도, 토함산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했다. 그

註 5) 이러한 선덕여왕의 뜻을 수용하는 다른 한 예로써 雁鴨池를 들 수 있다. 삼국통일의 대업과 함께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세우는 일환이었을 것으로도 보이는, 東宮의 池苑(정동오, 88; 57)으로써 조성된 이 안압지는 궁중의 중요한 건조물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안압지의 장소도 첨성대와 관련되어 있다. 즉 선도산에서의 동서축이 첨성대의 위치를 결정했고 그 연장선이 바로 이 東宮池인 안압지—좀 더 정확하게는 현재 복원되어 있는 세 殿閣 건물 중 가운데의 건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6) 그렇다면 첨성대는,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천문 관측대로서의 기능, 그리고 그 관측 자체가 어떤 과학적 연구목적이라기 보다는 占星을 통하여 나라 일을 점치고 祭天을 행한, 다소는 祭政一致의 성향에 따른 제단적 기능 등등의 기능을 지닌 가운데, 국가의 체제를 이루는 일환으로 보이는 王都의 空間計劃을 위한 구심적 중추 역할의 의도성이 매우 짙어진다.

러나 경주의 동악이었다는 그 사실 만으로는 그에 적합한 의미가 되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脫解說話에서 토함산이 한 부분이 되는 무대가 된 적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또한 석굴암과 불국사가 지나는 토함산과의 관련성과 결부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세가지의 사항은, 요약컨대 吐含山과 石窟庵 그리고 佛國寺의 三角關係의 骨格을 이룬다. 이러한 삼각관계의 골격을 이룬 총체적인 관점에서 토함산-석굴암-불국사를 고찰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적 고찰을 예로써 들어 본다면, 토함산의 이름에서, 내뱉고(吐) 들이마심(含)이라는 字意的 해석과 그러한 가정에 대한 실증적 현상을 고찰 자료로써 엮어볼 수 있다. 토함산이 불국사 석굴암과 관련된 한 현상은, 곧 토함산의 능선을 두고 이쪽 경주 방향의 기슭과 저 너머의 동해 방향의 정상 부근의 지형적 자연 현상적 관계에서 불국사와 석굴암 자체의 공간구조 및 공간형태적 특징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형적 자연현상적 상황과의 관계 역시 하나의 현상적 가능성으로 꼽힐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적 가능성이 구체화 되기 위하여는 특히 吐, 含의 語意性과, 造形物의 形式과 內容의 合一點을 찾을 때 가능해 진다. 결국 이러한 가설적 고찰의 예에서 보여 주듯 토함산과 석굴암 불국사의 총체적 고찰은 대상 각각의 個別性 뿐 아

니라 이들을 묶어주는 要素와 要因의 合一點이 찾아질때 비로소 가능함을 시사하는 바가 된다.”

이러한 범주의 몇 가능성들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가는 일은 곧 “왜, 석굴암은 토함산의 바로 거기에 있게 되었나”라는 경관해석의 명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명제는, 한편으로는 토함산 석굴암 불국사와 내용상으로 또는 공간상으로 관계될 수 있는 사실이나 說에 관한 제 자료를 필요로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한 관찰자에게 비친 象 즉 그에게 인식된 모습으로써 다소 객관적인 합치점을 찾을 수 있으며⁸⁾, 그와함께 소위 原型의 考察은 이러한 場所論의 考察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준다.⁹⁾

석굴암 조영이 있기 전부터 토함산은 경주의 동악으로 이미 승상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동악 토함산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조영되는데에 관련된 大城說話는 석굴암과 직접 연관된 자료로서 존재하지만 그 오랜 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脫解說話는 석굴암과는 무관한 관계에서의 동악의 의미를 잘 전해주고 있다. 신화나 설화가 절대적 허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고증될 만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듯이 탈해설화 역시 龍城國-바다-東海 阿珍浦-吐含山-半月城-(死後)소천-東岳神-(바다-용성국?)과 같은 틀 속에서 하나의 사실에 가까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가 아진포에

註 7) “生存하고 있음”의 가장 原初的인 現象은 숨의 들이쉬고 내뱉고 같은 氣의 吐와 含에 있다. 이를 자연현상적 특징과 조형물과의 합일성에서 찾아 본다는 일(장소론적 고찰)의 의의는 곧 석굴암과 불국사가 토함산과 함께 일체가 되어 인식되어 왔을 그 가능성의 핵심을 찾아봄과도 같은 것이다.(後述한 “景觀認識的 解釋” 참조)

8) 무엇보다도 未堂의 詩<石窟庵觀世音의 노래>(서정주, 84 : 66-67)를 참조.

9) 바로 이점에 대하여 原型論에 관한 소론은, 原型의 思惟와의 합일점을 보여준 바가 있다: “신화의 생성 등에 개제된 원형적 요소들, 또는 그 예들을 살펴본 원형론에 입각한 고찰은 토함산과 동해의 대응관계를 풀어주는 실마리가 되어주고, 그 대응관계의 성격이 결국 석굴암의 본질적인 존재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유추컨대, 석굴암의 조영을 통해 토함산과 동해의 대응관계가 結晶을 이루었을 것이다.”(정기호, 89 : 358 및 註26) 無影塔과 影池(그리고 간접적으로는, 半月城 좌우의 日精橋, 月精橋, 孝不孝橋 등 절대적 진리의 존재와 일상에서의 모든 현상이 지나는 비절대성, 즉 兩面性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있는 조형물)에 관계된 설화나 민담과 같은 素材도 석굴암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좋은 思惟的 資料가 된다고 봄. 이는, 主 事象軸, 즉 ‘토함산-불국사(석가 다보탑)-影池-佛影’으로 이어지는 한 事象의 틀과, ‘토함산-석굴암-동해구의 일출’이라는 또 하나의 事象의 틀의 영역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10) 이점에 대해서는 원형적 사유에서도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히 생각될 수 있을 神話素가 되고 있다.(정기호, 89 : 358, 註 25) 김종구는, “혁거세왕과 탈해왕의 그것(죽음)은 좀처럼 쉽게 해석되기 어려운 죽음으로 보인다. 탈해왕은 죽음과 죽은 후 동악신이 되어 나타남에 의하여 스스로의 神性을 죽음 이후 보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설화들에 나타난 죽음의 현상을 해석하였다.(김종구, 83 : 35) 신성의 주인공들이 신성-속세-신성(즉 탄생-삶-죽음)으로 이동하여 와서 이동하여 간다고 볼때 혁거세와 탈해의 몸체의 해체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혁거세왕과 탈해왕의 몸체의 해체, 뼈가 부서 지거나 뼈를 碎하여 새로운 塑象으로 만드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그들이 신성에서 세속으로 세계를 달리하는 존재가 되었을때 말에서 깨어남과 같이... 세속에서 신성으로 돌아감에도 세속적인 형체를 해체하거나 碎하여 버리는 것이다. 혁거세왕 신화에서 大蛇는 혁거세 왕이 세속적 형태로 다시 모아짐을 방해하는 것이며 탈해왕은 직접 명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상으로 토함산에 안치되고 그는 동악신이 되는 것이다.”(김종구, 83 : 35)

11) 意圖性에 관한 요인은 전술한 점성대 부분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음.

이르는 과정과 사후의 동약신에 이르는 신화적 요소에서 동약은 한 인물의 神格化를 위한 중요한 通過儀禮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¹⁰⁾

2) 장소론적 고찰

석굴암이 왜 '바로 그곳'에 있게 되었는가, 라는 장소결정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동해구에 떠오르는 日出의 光을 받기 위하여 라든가 동해를 지키려는 호국적 염원에서라든가 하는 요인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즉 토함산 정상부근이 아니라 하더라도 웬만한 산정 부근이면, 예로써 楡月山 祇林寺의 骨窟庵 같은 곳도 그 일출을 맞이하기에는 충분한 것이며, 그로부터 동해구를 응시하는 눈길을 이루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석굴암이 토함산의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은 앞서 본 탈해설화의 해석과 관련된 한 요인과 함께 기타의 복합적인 요인이 총체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필연성과 관계되어 있다. 즉 주어진 자연조건과 자연현상이 인위적 조형계획에서 의도된 모든 바를 충족시켜 줄때 어떤 특정한 장소가 결정되며 그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제 의도들은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내포되어 가는 것이다. 즉 석굴암이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불국사와 함께 對比的으로 상호관련되면서 많은 경관적 인식작용을 도출해 주게 된다. 지형적으로 토함산 정상은 경주시내의 어디에서나 주시되고 있다. 그 정상으로부터 거의 고저차 없는 준령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뻗어나간 산등성이가 東山嶺을 이루고, 이 동산령의 능선은 동해와 내륙(경주)쪽의 경계를 이루며 그로인해 능선의 양쪽은 판연히 다른 기후조건을 만들고 있다. 특히 새벽녘의 이 양쪽은 바람과 구름 그리고 기타 소소한 조건으로써 극히 대조적인 현상을 이루어서 그

한쪽은 구름과 세찬 바람 그리고 동해 바다의 습기를 머금은 기후가 매우 動的인 현상을 보이며 다른 한쪽은 포근히 감싸주는 산능선과 환포된 공간 속에서 靜인 현상을 이루어 준다. 바로 이러한 현상과 함께 그 한쪽의 정상부근에 놓인 석굴암은 前生의 父母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한쪽의 기슭 선상에 놓인 불국사는 以生의 父母를 위하여 이루어진 불사로써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以生과 前生, 靜의이고 母性的인 공간과 動的이고 男性的인 다소의 混頓의 공간, 또는 世俗의 공간과 理想 또는 다소는 天界的인 공간성을 띤 경관적 특성의 강한 대조성을 이룬 가운데 이 두 불사는 자체의 open되거나 enclosure된 공간성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석굴암 조영의 예술화 과정을 장소론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그것이 토함산에 있게 된 것은 한마디로 토함산이 東岳이기 때문이다. —동약은 숭앙되던 산이며, 그 숭앙의 구체적 事由와 석굴암과의 관계성은 脫解說話의 解釋¹²⁾과 大城說話의 解釋과 함께 東向文化性的 意味로부터 어렵잖게 정리될 수 있다. 2) 그것이 토함산 山頂 부근의 동해안쪽 능선너머에 있게 된 것은 그곳에 잠재된 場所的 特徵에 의함이라 할 수 있다. —日出을 직접받는다는 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불국사가 있는 능선 이쪽과의 지형적 自然現象의 特徵이 매우 對照를 이루는 점은 석굴암의 조영과 관련된 藝術的 追求를 위한 좋은 素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란 점에 착안할 수 있다. 3) 끝으로, 그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바로 그 지점에 있게 되는가. —가장 세부적이고 최종적인 場所決定에 개재된 인자는 日出의 受容에 있다. 日出의 光을 굴내에 비추게 하려는 것은 그림으로써 석굴암 조영의 本質的인 追求性과 밀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註 12) 탈해설화의 중요성은 生-삶-죽음-(神)의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와 신의 존재 사이에서 매개되는 요소로서의 山(토함산)이 개재되어 있음을 주목하는데 있다. [바다-산-속세-산-(바다?)] 註10 참조.

13) 석굴암의 형식과 내용을 통한 예술적 본질성: 1) 예술적 본질성: 이 본질성은 未堂의 일련의 詩로부터 공감 확인될 수 있거나[(서정주, 84; 358)의 詩를 비롯], 남천우의 견해-동지일출을 중심으로 보아 서북 30도는 12支 緣起說에 의하면 탄생과 생명인 '生'의 방향(남천우, 87; 184)- 등으로 부터도 공감대를 찾을 수 있으며, 일견 密教的 性向이 개재된 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됨. 2) 형식과 내용: 석굴사원의 양식을 수용할 필연성, 또는 구현하고자 하는 공간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양식을 석굴사원에서 발견: 戀生經의 장면(남천우, 87; 165-169) 및 觀佛三昧經(한국불교연구원, 83; 106). 이 경우 석굴의 공간형식은, 빛과 공간을 그 授與關係에서 상관시키고 빛에 대한 공간의 방향성을 뚜렷한 可視現象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용을 담는 역할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3) 景觀認識의 解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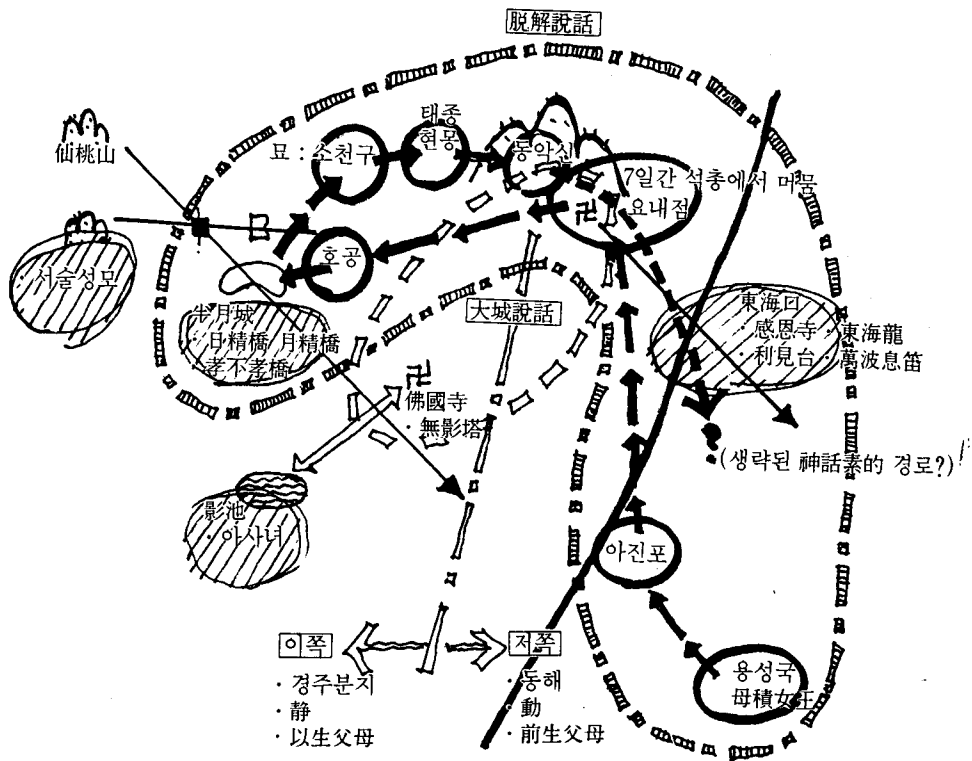
석굴암에 대한 역사적 현상적 제 사실의 해석은 석굴암이 불국사나 토함산과 함께 신라 이래의 못사람들의 美的體驗에 미친 영향관계의 검토로써 또한 확인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석굴암에 대한 景觀認識의 解釋이 되며, 그 해석은 佛寺가 조영된 결과를 놓고 못 사람들에게 비쳐진 모습으로서의 불사에 관한 野史의인 이야기, 즉 민담이나 설화에 실려진 내재적인 흐름에서 찾아지게 된다.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토함산은 당시 신라인에게 어떤 존재로 부각되었을까. 물론 이들 각각의 個性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토함산은 동악으로 숭상되었고, 불국사와 석굴암은 그 각각이 지니는 불사로서의 의미나 조형예술로서의 의미만으로써도 우리는 그 가치성에 명백함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데 엮여져 수용되는 가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숙고해 볼 필요가 생긴다. 그 의미는 대성설화가 이루어진

배경의 要因과 要素 속에 내포되어 있다. 즉 대성설화는 토함산의 불국사와 석굴암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에 膾炙되어 간, 공감대를 형성한 認識의 結晶인 것이다.

경덕왕대의 재상으로 金大正이 있었고 왕명에 의해 그가 두 불사의 경영을 맡았다가 그가 죽은 후 국가에서 그 일을 마쳤다고 해보는 사실(한국불교연구원, 83:17)을 근거로 한다면 거기에는 이생과 전생, 대성과 꿈... 등의 설화가 개재될 필연성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엄연히 드러나 있는 것은 대성의 설화에 의해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토함산은 한데 엮여져 우리에게 알려져 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토함산의 존재를 통하여 탈해설화가 또한 두 불사의 경영과 관련될 만한 가능성을 지니고 그로 인해 대왕암과 동해안, 또는 선덕여왕의 침성대와 왕릉이 마찬가지로의 맥락 속에 끼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대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關聯 解釋 또는 認識했느냐 하는 점은



[그림 2] 吐舍山을 中心으로 自然現象과 說話 그리고 造營物의 關係

‘景觀을 解釋하는 意味’에서는 무척 중요한 일이다. 말하자면 내 눈앞에 벌려진 한 현상을 놓고 나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가,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三者들은 또 어떤가—이러한 개별적인 해석들이 공통의 求心點을 찾았을 때 그 현상은 일반적인 공통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說話와 神話의 生成이 또한 그러한 과정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3. 石窟庵의 藝術性과 景觀의 意味 그리고 그 具現에 介在된 媒介要素

지금까지 본고를 통하여 살펴본 것은, 석굴암 조영을 예로써, 東向 또는 向日出性向의 傳來素를 불교문화의 영향관계와 함께 신라시대의 공간 경영상의 한 특징으로써 상관시켜 본 것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조형에 개재되고 있는 外來素와 傳來素는 동시대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즉 自生되었거나 또는 이미 예전에 전파되어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수용행위에 따라 이미 그 문화 속에 정착된 요소와 새로이 전파되어 온 새로운 요소로서의 전래소와 외래소는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생활 속에서 서로 조화 상충 되면서 그 작용이 이루어 지고 있다.

석굴암을 그 자체의 조영과 그로써 이루고자 하였던 경관 차원에서의 의도성 등의 총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는 곧 “형식과 내용을 통한 예술적 본질성의 추구”(註13 참조)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동시에 외래소와 전래소의 관계에서 살펴질 수 있다.

美(아름다운 것)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넓게는 인간 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범주의 것—를 藝術이라고 할 때 外來素는 종종 外形의 形式을 제공해 주고 傳來素는 그 외형형식이 이질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맺어주는 內在의 內容으로 작용됨을 볼 수 있다. 전래적인 동향문화는 첨성대와 같은 조형물과 함께 구현되었고, 그 先例는 석굴암 조영의 소중한 테마가 되어 주었다. 석굴형식의 사원양

식은 이 테마를 위한 具體的 方向性 提示의 그릇이 되어주었고, 석굴 내의 불상 조각과 그 의미는 굴 내의 공간에 記號化된 象徵性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제 요소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原型像을 나타내주는 生命本質의 한 모습을 具象化시켜 주는 것이다.

석굴암의 이러한 예술성과 주어진 자연현상과의 합일된 조화는 다시금 석굴암 자체의 장소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결국은 토함산의 존재 속에 내포된 한 點的인 존재가 되는 것이며, 그로써 석굴암 조영의 한 뜻은 동악으로 승상되어온 吐含山에 대한 人間의 抽象的인 意識相을 구체적으로 集約시켜 놓은 行爲의 結果物이란 의미가 되는 것이다.

II. 要約 및 見解

본고는, “석굴암은 결국 무엇을 발현코자 했던 것이며, 그 예술성이 이루어지는데 작용된 석굴사원의 형식과 동향 문화의 내용 등의 조영형식과 조영계획의 두요소의 역할과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명제를 경관론적으로 해석해 보면서 이의 조영을 전래되어 온 문화양상(傳來素)과 전파되어 온 외래문화 요소(外來素)의 상호관계에 의한 예술성으로써 생각해 본 것이다.

고찰과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첨성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련의 대상물로부터 신라의 동향문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볼 수 있고, 이는 신라 문화의 전래요소로서의 한 특징이다. 석굴암은 외형요소(形式)과 그로써 발현코자 한 내재요소(內容)이 한데 어우러져 그것의 예술성을 發하고 있는바 그것의 내재성은 전래적인 동향문화의 한 모습인 동지일출의 수용을 매개로 하여 표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래적 전파요소는 석굴암의 외형적형식을 제공해 주었고 조형예술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한 예술가 자신의 자기실현적 원형상 또는 불사조영이라는 외형 속에 내재되어

註 14) 우리는 석굴암 조영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것이 개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관련사항들을, 하나의 문맥을 형성하고 있는 낱말과 같은 의미로, 그리고 그로부터 그 낱말들이 형성하는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엮어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맥이 곧 석굴암 조형이 지니고 있는 경관적 의미가 되는 것이다.

있는 깊은 뜻은 생명의 본질의 표현이며 조형예술미는 그 表現의 한 方便이 된다.

결과적으로, 석굴암은 전통문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즉 전래소(전통요소)를 외래소(고급문화로서의 불교문화적 요소) 속에 어떻게 조화롭게 혼용시켰는가 라는 ‘傳承’의 개념을 생각해 해주는 사례가 되며, 하나의 대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 대상 자체의 고찰과 그것의 경관적 고찰을 통한 外延性的 考慮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가 된다고 본다.

전통적 역사물을 살펴보다 하면, 그들의 예술화 과정은 자연환경이나 자연현상으로부터 발견되는 이같은 潛在力의 活用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그 점이 예술화과정에서 인공적 건조물 조영에 경관요소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동기가 됨을 알 수 있다. “自然과의 調和” 또는 “自然의 理致에 順應함” 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조형예술적인 해석으로는 “잠재력의 범위에서, 그 잠재력의 활성화를 통해 예술의지의 발현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¹⁵⁾ 전통문화적 대상의 이러한 장소론적 경관해석의 본 연구는 다음 두가지의 면에서 그 의미가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역사물의 본체 및 본성을 밝히는 歷史的 考察의 한 방향이 되는 점, 즉 건조물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것으로 해서 외연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 둘째, 경관을 이루어 가는 것 또는 경관을 다루어 가는 일의 未來至向的 繼承的 勞力에 구체적인 실마리를 그로부터 찾아 본다는 점. 즉 석굴암이나 첨성대 등의 조성에서 그 장소를 결정했던 요인들은 주어진 自然條件의 潛在力 發見에서 부터 나온 것이며, 그 잠재력은 당시의 중요한 事案과 깊이 관련된 관점에서 찾아진 것이라는 점.

參考文獻

1. 金鍾九(1983) “三國遺事 敘事構造 研究”, 金烈圭(編) 三國遺事와 韓國文學, 서울:學研社: 35.
2. 南天祐(1987) 遺物の 再發見, 서울:正音社: 165-169, 182-184, 288-289, 303, 306.
3. 徐廷柱(1984) 未堂 徐廷柱 詩 全集, 서울:民音社: 66-67.
4. 宋政丘(1987) 韓國 옛 造形의 意味, 서울:技文堂: 165.
5. 權相老 解譯(1978) 三國遺事, 서울:東西文化社: 43, 89-90, 108, 133.
6. 鄭基浩(1989) “造形物의 內在性 考察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論文集(科學技術篇), 40(1) 351-362: 354, 358, 361.
7. 鄭瞳昨(1988) 韓國의 庭苑, 서울:民音社: 57.
8. 韓國佛敎研究院(1983) 韓國의 寺刹-2 石窟庵, 서울:一志社: 17, 105-106.

註 15) 이는 경복궁 근정전과 같은 전통 역사물 뿐 아니라 독립기념관과 같은 현대물의 경우에도, 그 공간배치 및 결정에 개재되었을 요인과 주어진 자연조건과를 상관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라는 추상적 개념의 전통적 공간경영 사상을 구체화시켜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검토 및 연구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더불어, 본 연구에서 거론된 석굴암의 사계적 고찰은, Heidegger의 藝術論과 관련된 검토를 통하여 藝術의 根源性으로써 생각해 볼 필요성을 남기고 있음. 즉 이러한 본질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경관이 예술성으로 승화되고 동시에 예술성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성을 말함이며, 그래서 景觀形成의 要因과 要素가 바로 우리의 生活 自體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임을 거론해 보는 것임.